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교회개혁을 위한 역사단상 1

글 김중락 경북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회의체에 의한 교회조직

주지의 사실이지만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교회제도이다. 1560년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톨릭의 주교제(episcopacy)를 버리고 ‘회의체에 의한 교회조직’(government by assemblies)인 장로교 제도를 채택하였다. 장로교 조직과 정치는 1578년에 발간된 <제2 치리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에 잘 나타나 있다. 가톨릭교회의 조직은 교황, 대주교, 주교, 교구성직자로 이어지는 사람에 의한 피라미드식 위계질서였으나, 장로교 조직은 사람대신 회의체를 돕고 나서 총회, 노회, 당회로 이어지는 회의체의 위계적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회의체에 의한 교회조직’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로(presbyter, 설교 장로와 치리 장로 모두 포함)들 간의 지위와 권한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있었지만 이는 가톨릭의 대주교나 주교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설적 존재가 아니라, 단지 총회나 노회가 열리는 동안만 존재하는 사회자(moderator)에 불과 하였다. 총회나 노회가 폐회 전에 총회장이나 노회장을 선출한 것은 다음 회의를 준비할 사회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교단의 최고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러한 제도가 지니는 본래의 뜻은 한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교제의 대주교나 주교만큼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스코틀랜드 교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교들이 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다

른 이들을 박해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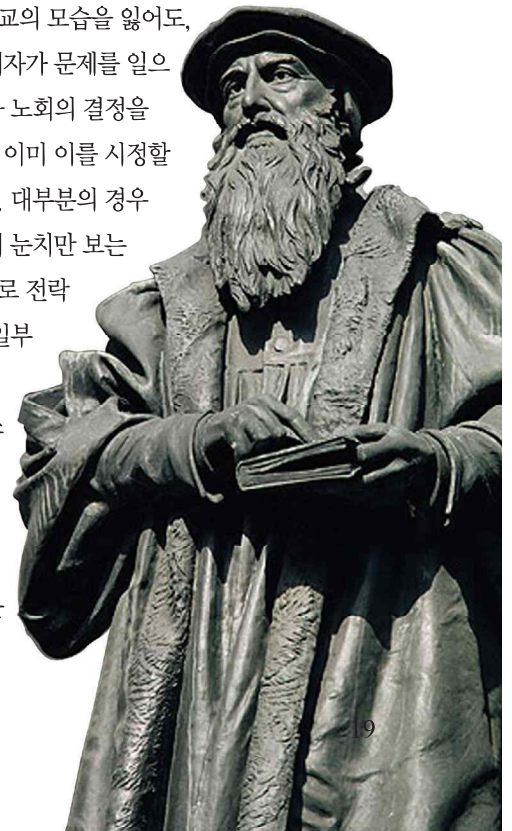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단위가 노회(presbytery)라는 것이다. 이는 개별교회는 하나의 예배처소에 불과하며, 노회의 지도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교회가 목회자를 선정하고, 장로를 선출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허락하고 주관하는 것은 노회이다. 장로선출과 임직 전 과정을 노회가 주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회는 개별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감찰하는 의무를 지닌 것이다. 이는 개별교회의 진행이나 비 성경적 결정을 통제하며, 신학적, 교리적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방안이다. 얼핏 생각하면 노회는 개별교회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교회의 유익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별교회는 장로와 목회자들의 비행을 노회에 알려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개별교회의 지도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현실

16세기 말, 17세기 스코틀랜드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교회가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잘 개혁된 교회'(the best reformed church)이며, 하나님이 제정한(divine right) 교회라고 믿고 있었다. 이 같은 스코틀랜드인들의 인식은 17세기 중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잉글랜드 혁명과정에서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장로교가 하나님이 제정한 교회제도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다. 모든 교회제도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주류가 장로교라는 사실은 16, 17세기 스코틀랜드인들과 잉글랜드인들의 인식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 먼저 사역자들 간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총회장, 노회장의 선출이 교권과 금전적 이해관계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회의체의 사회자인 총회장과 노회장의 자리는 막강한 권

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종종 그 권한은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남용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 권력을 얻기 위해 표를 돈으로 매수하고, 이권을 나누어 갖기 위해 당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회장선거가 돈 선거로 변질되었음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돈 선거를 통해서라도 회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 이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역자들 간의 평등이라는 장로교의 원칙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기총을 해체하려는 운동이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이 한국 장로교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각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다음으로 장로교의 노회중심 정치라는 원칙을 살펴보자.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장로교는 무늬만 장로교이지 노회가 제대로 살아있는 교단은 없다. 최근 어느 교회지도자가 "한국에 장로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한 것은 현실을 바로 대변한다. 대부분 장로교단의 노회는 개별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교회가 장로교의 모습을 잃어도, 개별 교회의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개별교회가 노회의 결정을 무시해도 노회는 이미 이를 시정할 힘을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경우 노회는 큰 교회의 눈치만 보는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교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도 노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교회의 설교 내용이 빛나가도, 성례가 빛나가도, 예배가 말초적이 되어도, 교회가 기업이 되어도 노회가 문제 삼는 일은 사라진지 오래다. 총회와 노회는 교회의 정치(polity)가 행해지는 곳이 아니라 교권 모리배들의 정치(politics)가 행해지고 있는 장일뿐이다.

역사로부터 배우자

최근 수년간 가톨릭교회와 불교계는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나날이 그 교세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초에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청빈한 삶을 산 것으로 인해 많은 세인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아프리카 수단인 톤즈에서 일생을 헌신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가톨릭 교인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감동으로 울리고 있다. 또한 불교 지도자였던 법정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산 것으로 인해 불교에 대한 세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반면 개신교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수년간 개신교는 가톨릭과 불교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불신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돈 문제, 여자문제로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해 6억 원의 사례를 받았으며, 성추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목회자의 사임에 20억 원의 퇴직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조금 큰 교회 담임목회자의 은퇴 예우는 개신교 타락의 핵심을 보여준다. 공식적인 퇴직금은 물론, 수억의 위로금, 아파트, 차, 그리고 연금

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회사 직원들이 이 같은 대우를 받는단 말인가? 가슴이 아프다. 개신교인인 것이 부끄럽다. 다른 누구보다 더 말썽대로 살아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평생을 말썽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교우들과 세상을 실망시킨다면 수많은 개신교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 평생을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느껴야 하는 소외감은 어떨까? 이 모든 부작용도 노회와 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왕이 된 다윗이 청년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한 것은 권력의 속성 때문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한 역사가 액톤 경(Lord Acton)의 말은 장로교 원리를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형교회 목회자의 타락은 그 손에 절대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노회와 총회의 정상적 작동만이 이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역사를 거울이라고 하였다. 16,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배우고, 역사로부터 구원과 개혁을 배운다. 한국 장로교회는 역사를 배우야 한다.